

## NEWS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 광주 북동 일대 공동주택 2679세대 조성

## ▶1면 '尹 탄핵심판'서 계속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현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의 선고 직전까지 정의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할 태세다.

현재 결정에 여야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잇달아 나왔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이 나서서 현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현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며 "당리당락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1면 '전남 구제역'서 계속

전남도는 19일까지 7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전체 우제목 115만7000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역 내 15개 가축 시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내렸다.

한편 현재까지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무안을 포함해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까지 총 10곳이다.

그동안 전남은 1934년 국내 첫 구제역 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해 왔다.

전국적으로도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만의 발생이다.

## 시, 20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고시

## 수창초 시설 확충·복동성당 존치...사전공공기획

광주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와 복동성당 인근 노후 도심이 재개발을 통해 2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동 190-1번지 일대 13만6250㎡ 부지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지난 14

일 고시했다.

해당 부지에 2679세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정비기반시설, 공원, 문화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은 용적률 420% 이하, 높이 160m 이하를 적용해

전용면적 60㎡ 이하 918세대, 60~85㎡ 1454세대, 85㎡ 초과 307세대 등이다.

부지 내 7003㎡의 수창초교는 재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시설을 확충하고 5060㎡의 복동성당은 존치한다.

이울러 리얼양복동성당을 중심으로 공원 등을 갖춘 문화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복동이 가진 역사성과 정체성을 이어간다. 또 동간 거리를 넓혀 통근족을 확보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북동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 5월 첫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광주시는 2023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공공기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전 공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하

기 위해 공공이 나서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 시의원, 시·구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 공공 기획 전담팀을 꾸려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이끌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공공기획 자문을 통해 기존 단지 안에 위치할 예정이던 상가도 금남로 방면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65주년 광주3·15의거 기념식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제65주년 광주3·15의거 기념식'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국민주주의 상' (앞) 민주주의 상을 수여하며 '재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전남 정주여건 등 섬종합발전사업에 659억 투입

## 도, 9개 시군 79곳 마을기업 육성·어업 기반 등 개선

전남도가 올해 섬종합발전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원을 들여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민소득 증대, 복지시설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주요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 직판장, 공동작업장 등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분야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

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연륙·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등 교통 여건 개선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여수 개도 여객선 집안시설 보수공사를 비롯 고흥 죽도 물양장 조성, 보성 장도 목섬 어장 진입로 개설, 영광 송이도 송이마을 생활개선 패키지사업, 완도 덕우도 생일 대합실 신축사

업 등이다.

섬종합발전사업은 사업 대상 섬에 대한 10년 단위 개발계획이다. 지난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이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 개발 대상 섬은 전국 371개 중 58%인 215개다. 사업비는 4차 개발 기간 동안 7262억원으로 전국 1조4972억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

## 한국, '미국 민감국가' 지정 첨단기술 협력 직격탄 우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거 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연합뉴스

## 전남도 기초실정에 윤진호 담당관 임명

## 도정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전남도는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윤진호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사진)을 17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윤진호 실장은 강진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제6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풍부한 행정능력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남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국비 확보, 도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더 위대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전



남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도정 발전과 성과를 이룩하는데 중추 역할을 했으며, 탁월한 기획력과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풍부한 행정능력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남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국비 확보, 도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더 위대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 광주시, 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 착수

## 관람석 금형 제작 후 의자 생산·8월까지 현장 설치

광주시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노후 일반 관람석 의자 교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노후 관람석 1만6294석 교체를 위해 관람석 전문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 관람석 금형 제작에 들어갔다.

현재 계약업체는 기존 관람석 틀에 맞는 금형 모형을 제작 중이며, 4월 중순께 금형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의자 생산과 현장 설치 등 시에 추진된다.

광주시는 프로야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노후 관람석 개선 사업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가 지역 사회의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석 등 정비를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복합스포츠펠과 연계한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 사업 협력을 통한 문화발전 기여, 많은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관리, 콘텐츠 개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등 친환경 정책 추진 상호 노력,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노력,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 기반한 주차장 관리 등 교통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경기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경기 없는 날을 활용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며 "광주시가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람석 교체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라남도 Jeollanamdo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두 개의 대학이 통합하기로 합의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2026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은 지역 간 상생·화합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사명감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에서 도민 모두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지금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골든타임입니다.**

☑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1도 1국립대학의 선도 모델인 대학 통합과 정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신속히 이행할 때입니다.**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 확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